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전면 취소

진도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따른 감염증 예방 현장 방문 자제 홍보 활동 홈페이지·현수막 설치

진도군이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17일(일)부터 19일(월)까지 3일동안 개최 예정인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국내외 관광

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바닷길 체험 등 관광객들의 밀착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와 군민·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지역축제 방역 지침에 따라 축제를 취소했다. 특히 진도군은 축제를 취소하지만 자율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축제 취소와 바닷길 현장 방문 자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홈페이지(GNS 등)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국 지자체, 여행사 등에 홍보하고 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축제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며 "내년에는 완벽한 축제 준비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700만 캠핑족 겨냥 '해남에서 장보기' 이벤트

해남군, 캠핑장 이용시 1만원 이상 해남에서 장보면 경품 추첨

해남군은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남에서 장보기' 영수증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남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야외 캠핑 선호도 급증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체류 관광을 벗어나 소비촉진과 지역상가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이벤트 대상 장소인 송지면 땅끝 오토캠핑장, 땅끝황토나라테마촌과 회원 오시아노캠핑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낭만적인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해남군에 소재

한 지역상가에서 1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응모하면 추첨에 의해 해남군 지역 농수특산품이나 관광기념품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벤트를 시행한다"며 "캠핑인구 유치와 더불어 지역상가 이용률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에서 장보기 이벤트는 해남군 캠핑장 이용객에 한해 8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강진군, '강진 4·4 독립 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지난 4일 강진문화원(원장 박종민) 주관으로 강진군 남포마을 3·1운동 기념탑 앞에서 강진 4·4 독립만세 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승욱 강진군수 및 기관 단체장 50여 명만 참석했으며, 독립열사 소개, 참배 및 헌화식, 4·4만세운동사 낭독, 만세삼창 등으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은 전남지역 내 최후이자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으며, 암울한 시대에 군민들이 가족과 후손들에게 나라를 되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사건이다. 강진군은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남포마을 3.1운동 기념탑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기념사에서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 우리·강진군민들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이 지역의 역사이자, 자랑거리이다"며 "강진 4.4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군민의 화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시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 개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정주여건 조성 등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 논의

강진군은 지난 1일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서 2022년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자문단 위원 및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위험 대응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강진 이미지 마케팅,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광역단위 교통망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군은 대책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구체화시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인구는 1965년 12만 8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3만 4천 명이다. 산업과 이후, 많은 노동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지역 발전이 정체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용훈 정책자문단 단장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의 원인분석하고 우리 군 특화자원인 화훼, 청자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지역민 인구유출 방지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욱 군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강진의 인구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며 "빈집을 활용한 청년층 인구유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진군을 포함해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한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평가 통해 공약사업 성실 이행·군민 소통 등 성과

장흥군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전문가와 활동가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는 평가이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개 분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1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웰소통 분야, 공약일지도 분야이며, 장흥군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민선7기 출범 후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현', '활기차고 풍요로운 잘사는 농어촌 육성', '품격 있는 문화·관광·체육도시

육성', '역동적인 지역경제·소통하는 행복군정' 등 4개 분야에 대해 55건의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군은 2022년 2월말 기준 공약사업 추진율 86%를 달성했으며, 임기 내 90%이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장흥군 공직자와 이에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